

**\* 과목 및 주제 \***

국어과 세특 >> '3단원. 문학으로 그리는 삶' 연계

**\*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 \***

국어과 세특 주제와 내용 정리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이에 사회학과를 희망하는 다혜 학생의 진로를 고려하여 '3단원: 문학으로 그리는 삶'을 선정하여 작품을 분석함과 동시에 문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고자 '아홉 켠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로 보는 가난과 소외'라는 주제를 설정해드렸습니다. 아래 세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세특에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기본 내용	1. 교과서 연계		
	교과 단원	3단원: 문학으로 그리는 삶(아홉 켠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희망 학과	사회학과	연계 전공   문학과 예술의 사회학
	관련 제재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과 부조리한 현실	
	세특 주제	아홉 켠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로 보는 가난과 소외	
	주제 설명	교과 과정에서 배운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작품이 반영하는 사회적 문제를 포착함을 보여줌으로써 학생의 '교과적 능력'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탐구 flow 추천	2. 탐구 주제 설명	"아홉 켠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사회적 계층과 양극화, 권력 구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그리는 소설입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작품은 사회의 부와 빈곤, 권력과 무력 사이의 갈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주인공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균형이 무너진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소설은 사회학적으로 빈곤, 권력, 사회적 계층 등의 테마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홉 켠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깊이 있게 살펴보는 분석을 통해 사회 구조와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서론(주제 선정 이유 및 탐구 주제 제시)	"아홉 켠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고 소설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며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해보고 싶었다.'라는 식으로 동기를 서술해주시고, 제	

	<p>공해드린 주제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b>■ 본론 (소설에 대한 분석 및 탐구)</b></p> <p>소설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 ‘본론 내용’ 부분에 소설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방향성을 제시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공해드린 다혜 학생이 소설 속 인상 깊게 읽거나 파악했던 부분이 있다면 추가해서 서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에서 절대적인 해석과 분석은 없습니다.)</p> <p><b>■ 결론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b></p> <p>소설 속 현실이 오늘날과 동떨어져 보이나, 그 내면에 도사리는 가난과 소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에 오늘날의 사회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예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예시 세특 내용</p>	<p>* 예시 세특 내용은 제공해드린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시, 생활기록부에 작성될 수 있는 추천 내용입니다. 다혜 학생이 국어 교과목에 있어서 깊이 있는 탐구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세특 내용의 예시임으로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후 세특을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 <p>수업 시간에 소설 ‘아홉 쉼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학습하며 이 소설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그려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의 행동과 대사가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소설의 배경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소설의 배경을 파악하며 주인공이 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외재적 관점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외재적 관점의 분석을 통해 소설이 강조하는 가난과 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가 과연 과거에만 국한되는 문제인지 고찰해보았습니다.</p>
<p>본론 내용</p>	<p>이 소설이 문단으로부터 주목받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그 시대성 때문이다. 윤희길 이 활동했던 197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극심했던 시대였다. 특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과정은 당대 주체들의 물질, 정신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의 결과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는 당대 주체들의 계층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전면화하는 계기가 된다.</p> <p>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에 따른 경제 구조의 개편, 농촌 인구의 대도시 이동으로 농촌 공동체는 붕괴되고, 노동 분화의 가속화, 인간 소외의 증가, 물질적 가치관의 범람과 문화의 상업주의적 퇴화, 빈부 격차의 심화 등은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문제였다. 이러한 시기를 적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윤희길의 「아홉 쉼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읽는 데 의미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p> <p><b>■ 교과서에 나온 첫 번째 연작 ‘아홉 쉼의 구두로 남은 사내</b></p>

첫 번째 연작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현실적으로는 도시빈민의 위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시민의 자부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심인물 권기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은 권기용의 실패와 좌절 과정을 지켜보는 오선생의 관점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접근은 오선생의 인식과 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자기 바깥으로 비죽비죽 내민 것으로 보아 권씨의 아내가 이고 온 짐은 취사도구 일 것이다. 아무리 셋방으로 나도는 살림이라지만 그쯤 되고 보면 해도 너무했다. 내가 어안이 병병해 있는 동안에 사내는 슬그머니 한 쪽 발을 들더니 다른 쪽 다리 바지자락에다 구두코를 쓰욱 문질렀다. 이어서 이번엔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먼지가 닳여 반짝반짝 광이 나는 구두를 내려다보면서 비로소 그는 자기 구두코만 큼이나 해맑은 표정이 되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이 재고 정리 바겐세일 바람에 하나 주워 걸쳤을, 지그재그 무늬의, 때 이르고 유행 지난, 후줄근한 여름옷과는 영 안 어울리게 그의 구두는 제법 신품이었고 알맞게 길이 난 호사품이었다.”*

여기서 오선생의 집 문간방으로 이사 오는 권기용 가족의 초라한 이삿짐 꾸러미와 권기용의 철 지난 옷차림이 그가 신고 있는 광나는 구두와 대조적으로 비춰진다. 권기용의 이런 묘한 행색이 오선생 만큼 독자에게도 흥미롭게 느껴지질 수 있는 것은, 권기용과 처음 마주하는 오선생의 시선이 독자에게 객관 적으로 보여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즉, 독자는 권기용이 왜 가지 고 있는 살림살이의 형편과 확연히 다른 광이 나는 구두를 신었는지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오선생의 눈을 통해 보이는 그의 외양 자체에서 궁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가정 방문 주간에 오선생이 학부형들을 찾아다니던 중, 공사판에서 완연한 사무원 복장으로 험한 일을 하는 권씨를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권기용은 벽돌 장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라서 자신이 여기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며 오선생을 다그친다. 오선생의 대답에도 그의 의심이 풀릴 기미 가 없자 오선생은 황급히 돌아온다. 그리고 그날 밤 권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여 이사 온 후 처음 오선생에게 스스로 찾아와 자신에 대해 알린다.

*“밤이 꽤 늦어 권씨는 귀가했다. 그는 문간방을 거치지 않은 채 내가 들어 있는 안방으로 직행해 와서 두 홉들이 소주병 하나를 푹 쫓는 기세로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미 어지간히 취해 있었다. “이래봐도 나 안동 권씨요!” 피곤에 짓눌렸던 몸뚱이가 이번엔 술에 흠뻑 젖어 갠신 못 할 지경인 데도 목소리만은 제법 또렷했다. “물론 잘 아시리라 믿지만 안동 권씨 허면 어딜 가도 그렇게 괘신 안 받지요. 오선생은 본이 해주던가요?” 내 구두가 자기 구두보다 항상 추저분하고 또 단벌임을 매번 확인하듯이 이참에는 성씨로써 일종의 길고 짧음을 대불 걱정인 듯했다.”*

그가 오선생을 찾아와 말을 꺼낸 이유는 자신이 사무원 복장으로 일을 한 것에 대한 해명이나 오선생이 정말 자신의 뒤를 밟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 때문이 아니었다. 독자는 권기용과 오선생의 짧은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권기용이 스스로를 규정짓는 자의식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작품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 마다 '나 이래봐도 안동 권씨요.'와 '나 이래봐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라는 말을 내뱉는다. 이것

은 그가 해산을 앞둔 아내의 수술비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도시빈민이라기보다는 지식인이며 소시민이라는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이다. 때문에 오선생이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동 권씨'라는 가문을 들추어 자신을 높이며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현실에서의 무능력함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권기용이 보여주는 발언과 처한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내면의 자아는 지식인이자 소시민이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냉혹하게도 빈민의 위치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스스로를 도시빈민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소시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권기용을 향해 관찰자인 오선생은 애착을 느낀다. 그가 권기용의 이해 못할 행동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 선생 또한 권기용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이라는 빈곤한 동네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의 구성원으로부터 '선생'이라는 이유로 다. 권기용에 대한 오선생의 친밀감은 이러한 허구적 신분에 집착하는 권기용의 내면에 대한 이해 덕분이다.

*“적어도 내게는 여러모로 미루어 많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쩌다 잘못 얻어걸려 하는 직업이 바로 선생이었다. 그런데 그 선생을 대단하게 알고 별 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다른 한편에는 또 있는 것이다. 동그라미를 그 림 생각이었는데 네모가 되었대서 세모가 되지 않은 것만을 다행으로 여길 수는 없었다. 나를 대단한 인물로 보아주는 단대리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한 번도 큰기침을 한 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들을 쓰다듬어 주고 싶지도 않았다.”*

오선생 자신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선생'이라는 직업이 단대리라는 빈촌에 사는 그를 별종으로 보이게 했다.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단대리 사람들에게 오선생은 일종의 우월의식을 가지지만, 동시에 오 선생은 동그라미로 상징되는 상층에는 자격지심을 느낀다. 그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의무와 과제를 알고 있었기에 '쓰다듬어주고 싶지도 않았다.'고 회상할 수 있으며, 램과 디킨스를 비교하며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하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인 자신의 신분에 연연한 적이 있는 오선생이기에 권기용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다.

관찰자 오선생의 시선이 일관되게 인물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기용과 오선생 사이에 형성되는 공감의 정서는 외부적 관찰자인 오선생을 권기용의 내부까지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 인물 스스로 발설하지 않는 내 면의 자의식은 인물이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비추어 지는데, 권기용에게 있어서 그것은 열 켈레나 되는 구두에 대한 과도한 애정으로 드러난 다. 권기용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오선생의 시선은 권기용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석을 통해 드러난다.

*“보아하니 권씨의 구두 닦기 실력은 보통에서 훨씬 벗어나 있었다. 사용하는 도구들도 전문 직업인 못잖이 구색을 맞춰 일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 리고 무릎 위엔 앞치마 대용으로 흰 내의를 펼쳐 단벌 외출복의 오손에 대비하고 있었다. 휴과 먼지를 죄 털어낸 다음 그는 손가락에 감긴 헝겊에 약을 묻혀 튼튼 침을 빨아가며 칠했다. 비잉 둘러가며 구두 전체에 약을 한 벌 올리고 나서 가볍게 솔질을 가하여 웬만큼 윤이 나자 이번엔 우단 조각으로 싹싹 문질러 결정적으로 광을 내었다. 내 보기엔 그런 정도만으*

로도 훌륭한 것 같은데 권씨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동작 을 반복했다. 그만한 일에도 무척 힘이 드는지 권씨는 땀을 흘렸다. 숨을 헉헉거렸다. 침을 뿔뿔 뺐었다. 실상 그것은 침이 아니었다. 구두를 구두 아닌 무엇으로, 구두 이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이 밭에다 꺾차는 물건이 아니라, 얼굴 같은 데를 장식하는 것으로 바꿔놓으려는 영 똥한 의지의 소산이면서 동시에 신들린 마음에서 솟는 끈끈한 분비물이었다.”

오선생 눈에 구두가 흡사 '얼굴 같은 데를 장식하는'것으로까지 여겨질 정도로 권기용의 구두 닮는 실력과 행위는 구두 이상의 것을 상징하기에 충분하다. 구두를 통해 권기용은 현실에의 패배를 심리적으로 보상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두는 그에게 있어 '최후의 보루로서 지키고자 하는 자아'이자 '계층적 정체성에 집착하는 강박증적 심리의 표상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구두' 그리고 '가문과 학력'으로 간신히 지탱해오던 권씨의 자존심이 절박 한 현실에 의해 무참히 깨지는 사건이 차례로 발생한다. 그는 우선 아내의 출산 비용을 오선생이 빌려 주지 않고 냉정히 거절하는 것에서 심한 상처를 받는다. 오선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을 빌미로 권기용은 오선생의 집에서 강도행각을 벌인다. 그러나 그것마저 실패하고, 어설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것을 오선생이 대문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또 한 번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는다. 결국 권씨는 그길로 자존심과 같은 자신의 아홉 켄레의 구두를 든 채 가출을 하고 만다. 이는 권기용이 자신의 자존심인 구두마저 버릴 만큼 현실적으로 극한 상황이었음을 우회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학이 자기 성찰을 대상으로 삼듯이, 극심한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오선생이 강도로 들어온 권씨에게 취한 행동이 졸렬했음을 권씨의 가출로 깨닫는다. 오선생은 자신이 선량한 소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지식인적 양심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권씨를 통해 궁핍한 이웃을 외면한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게 되면서 자신의 내면에 소시민적 이중성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의 반성적 성찰은 곧 권기용 아내의 출산 병원비를 대납해 주는 모습으로 구체화 된다. 그 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진짜 보호자처럼 감격 하는 등 이웃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오선생으로 인해 이 작품은 한 편으로 완결되는 개별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입증한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70년대 급속한 산업 발전 속에서 소외된 개인에 관심을 가져오던 작가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따라서 지식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시빈민인 권씨를 전형적인 소시민인 오선생이 서술자가 되어 작품을 전개함으로써 작품에 사실성을 획득한다. 오선생은 더 나은 상류를 꿈꾸는 선량한 소시민이고 권씨는 대학 나온 학력을 내세워서라도 소시민에 속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 둘은 지식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권씨는 지식인으로서 비록 무의식적이고 일시적이었지만 사회의 부조리에 대항하는 문제적 인물이 되었고, 연작이 전개됨에 따라 변모될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오선생의 눈을 통해 짐작은 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권기용의 내적 갈등과 행위의 이유는 주인공 자신이 스스로 고백서와 같이 쓴 두 번째 연작 직선과 곡선에서 드러난다. 관찰자인 오 선생의 눈과 귀를 거쳐야만 파

	<p>약되던 권기용의 가치관과 그가 처한 갈등을 직선과 곡선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면서 독자는 권기용을 보다 심층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p> <p>70년대 한국 사회는 국가의 통제 아래 일괄적으로 급속한 산업 개발이 이루어진다. <b>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 소외된 개인에 관한 문제가 화두에 오른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b> 윤홍길을 포함하여 당시 문단에 등단한 많은 신인 작가들은 이런 사회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한다. 거대한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강한 빛과 같은 경제적 성장이 인권 침해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한 것이다. <b>윤홍길은 진정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사회적 환경과 자신의 경험을 결부시켜 예리하게 소설에 담아내고 있다.</b></p> <p>집단적 권위에 짓눌린 개인에게 주목하는 윤홍길의 시선은 변화되는 시점을 가진 네 편의 연작을 통해 첨예하게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작가가 현실의 고발에서 이야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 속에 놓인 상처받은 인물의 진정성과 자기반성으로 시선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가치가 예각된다.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연작에서 소시민적 자기반성 자인 화자에 의한 서술은 현실의 부정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물의 양심과 대조를 이루어 주제를 구체화하고 결국 작품과 독자를 더욱 견고히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 여러 화자에 의해 입체적으로 탐구되는 한 인물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인물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 모순과 대조적으로 드러냄으로서 이 작품이 가진 숨은 가치를 찾을 수 있다.</p>
<p><b>결론 내용</b></p>	<p>1970년대 급속한 산업 개발 속에서 소외된 가난한 개인의 애처로운 삶과 자존심에 대해 그린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요즘의 현대사회와는 어쩌면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이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발전을 이뤄냈고, 국가와 개인 모두 절대적인 가난에서는 벗어난 듯 보인다. 그러나, 발전한 사회 속에서도 필연적으로 변화 속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p> <p>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가난'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권력' 속에 소외된 개인의 이야기 이므로 이런 사건을 대입시켜 볼 유사한 현실이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화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나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활이 뿌리 채 뽑힌 사람들에게 대한 체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록 발달된 산업화 사회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li> <li>▶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li> <li>▶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도와준/모른척한 경험이 있는가?</li> <li>▶ 힘없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li> </ul>